

AJAE의 현황



Asian Journal of Atmospheric Environment (AJAE)는 우리 한국대기환경학회와 일본의 대기환경학회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이며 편집장으로는 일본의 Matsuda 교수와 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AJAE의 그간 현황에 대하여 많은 회원들께서 관심이 많을 터인데, 지난 일년간 우리 회원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자리를 빌어 말씀 드리하고자 합니다.

AJAE는 일 년에 4번 발행하고 있으며, 2010년에 총 3호를 각 호마다 6~8편의 논문을 수록하여 정시에 발행하였습니다. AJAE를 정시에 발행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 것만은 아닌데, 이는 지난 일년동안 학회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고 또한 학회 회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AJAE 논문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총 56편의 논문이 제출되었습니다. 21편이 작년에 출간 되었고, 올해 3월호에 발간할 8편의 논문이 2월 초에 이미 심사과정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심사 중인 논문이 20편이고 지금까지 게재불가 판정이 된 논문이 7편입니다. 6월호에 실을 논문들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9월호에는 일본 측에서 준비하는 special issue를 출간할 예정이어서, 현재 9월호에 실을 논문까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제출된 논문의 수가 적어 마음을 졸이던 때에 비하면 훨씬 여유롭게 AJAE 편집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회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활하고 공정한 심사를 해 주신 심사위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국, 일본 뿐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등 여러 훌륭한 연구자들로 editorial board를 구성하였습니다. 논문 심사도 3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on-line으로 출간된 논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월에는 국제 수준에 맞는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AJAE 홈페이지에 구축합니다. AJAE에 출간된 모든 논문은 DOI(Digital Object Identifier)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모로 AJAE가 국제학술지에 걸맞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출간된 논문에 대하여 indexing service하는 회사가 여럿 있습니다. 그 중 Thomson사의 SCI(E), Elsevier사의 SCOPUS, EBSCO Publishing사의 EBSCODatabase가 가장 유명한 3군데입니다. 작년에 정시에 발간한 AJAE를 Thomson사에 보내서 SCI(E)에 등재 신청을 한 상태이고, Thomson사의 심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최근에 연구재단에서는 SCOPUS에 등재 여부를 논문 평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SCOPUS 등재 신청은 2년간의 정시 발간 기록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EBSCO에는 협약을 하여 3월부터 AJAE가 indexing service에 등재됩니다. 그 외 다른 indexing service에도 순차적으로 등재를 할 예정입니다. 연구재단에 등재학술지 신청을 올해 6월에 할 예정이고, 그 결과는 올해 말에 나오게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AJAE의 정시 발간 역사가 짧기 때문에 여러 indexing service에 등재되기 위하여는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과 학회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회원분들의 적극적 참여를 감안하면 SCI(E)를 포함하여 indexing service에 등재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SCI(E)나 SCOPUS에 등재하는데 가장 중요한 평가 요인은 발간되는 논문의 질입니다. 논문의 질은 주로 citation의 수로 평가합니다. 모쪼록 AJAE에 더욱 좋은 논문을 많이 출간해 주시고, 타 논문에서 AJAE에 발표된 논문을 많이 인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AJAE 학술지가 발전해 나가는 것을 지켜봐 주십시오.

